

미술	칸만화	시	산문	성악	플루트
 성세경 <금당초1>  권유선 <광주계림초4>  정재윤 <광주송원초6>  강민지 <광주동성여중3>  정지윤 <광주여고1>	 박혜령 <조대여고2>  전유민 <유덕초4>  정소영 <대성여고3>  손상원 <광주삼육초5>	 김석현 <광주송원초1>  조수양 <조봉초4>  김태윤 <광주송원초6>  고은서 <봉산중3>	 서현선 <광주예술고2>  손다희 <광주예술고3>  김민경 <살레시오초2>		

오보에	유포늄	클라리넷	트럼펫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한국무용창작
 황도연 <1995년생>  김수환 <고려고3>  박민우 <광주송원초6>  최신하 <전주예술고3>  김평안 <정암초6>	 함여원 <광주송원초6>  윤지은 <광주예술고1>  이현민 <윤남중2>  이솔비 <목포항초2>	 김예진 <독천초4>  선지수 <전주인봉초5>  고은유 <우산중2>  김은선 <윤남중3>	 여선형 <1997년생>  김연우 <광주상무초3>  손민환 <광주예술고3>				

현대무용	발레창작	발레클래식	가야금산조
 김민경 <광주수피아여고3>  차혜주 <일곡초1>  최예진 <은빛초3>  김민주 <영천초6>  황민혜 <광주예술고2>	 김은영 <은빛초5>  정하은 <성덕중3>  정연재 <1997년생>  선지향 <신광중3>		

종합상

<최고상>
 광주송원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우수상>
 살레시오초등학교
 여도중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

시

<초등부>

이 빠진 날

전유민 <광주유덕초4>

이가 흔들흔들 흔들리네요.
 이가 곧 빠질 것 같아요. 엄마도 없는데 아빠도 출장 가셨는데 '어떡하지?'

그냥 슬쩍 손으로 흔들었는데 '수육' 이가 빠져버렸어요.

눈물도 안 흘렸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다 나는 의젓합니다.

이가 빠진 것 보다 이가 없는 허전함보다 이가 새로 나는 게 기쁘답니다.

단체 최고상

발레창작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현대무용 고등부=한빛무용학원
 현악중주 초등부=살레시오초등학교
 타악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합창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합창 중등부=광덕중학교
 관현악합주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관악합주 중등부=양산중학교

산문

<초등부>

눈물

손상원 <광주삼육초5>

"우리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우리는 가끔씩 이 아픔의 역사를 잊고 생활하는 것 같다.
 지난 4월 25일, 광주삼육초등학교 5학년 소망반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열린 토론이 열렸다. 이번 토론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분단의 아픔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 있었다.
 남북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통일 후 북한 체제에 대해 위험성 때문에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대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그 이유는 한 민족이지만 분

단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들이 헤어져 사는 아픔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은 꼭 필요하다. 가족이 남북으로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며 고통스러운 비극이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아픔의 역사 속에 슬픔의 눈물을 수없이 흘렸다. 일제강점기의 핍박과 고통의 눈물, 해방 후 기쁨의 눈물도 잠시, 또 다시 분단이라는 '비극의 눈물' 속에 살고 있다. 하루 빨리 '비극의 눈물'을 그쳐야 한다.
 나는 분단의 아픔을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통일로 더 나아가 수 있도록 통일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바른 지식을 쌓고 바르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민족의 아픔이 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모두를 해맑게 웃으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그려본다. 힘차게, 행복한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하는 그 날을 기다린다.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등부>

나의 등대

정소영 <대성여고3>

불빛이 한 치수 더 높은 수술대 위에 언니가 누웠어요. 곧 있으면 마취가 들어가고, 몇 시간인지 모를 대수술이 시작될거지. 언니의 몸 전체로 길게 뻗어있는 어둠이 수술실 바깥에 있는 나의 손바닥까지 잡혀와, 하지만 언니, 두려워하지 마. 벌써부터 언니의 몸 안에 있는 밝은 세계가 꿈틀대기 시작했으니까.
 언니, '수술중'이라는 간판의 끝자락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각막을 들어내고 있는 언니의 눈이 아직도 정적 같은 어둠인지는 알 수가 없어. 어쩌면 뜰수록 내 각막 안에선 작은 먼지덩어리가 나뉘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 먼지덩어리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었겠지.
 누구보다 언니의 보이지 않는 눈을 창피해하던 사람은 나였으니까. 나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언니랑 같이 다니는 것을 싫어했어. 지광이를 짊어주며 언니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는 언니의 옆에 있으면 나도 언니와 같은 장애인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조금 떨어져서 걸다가 발을 헛디뎠던 언니를 보면 나는 더욱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껴. 그럴 때마다 나는 언니에게 소리를 질렀지. "좀 똑바로 걸

어"라며, 나는 그렇게 언니에게 더욱 멍에 같은 어둠을 주고 있었나봐.
 나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언니의 눈에서 나오는 작은 빛을 기억해, 언니가 나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 감광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던 나보다 언니의 감각은 깨어 있었어. 그날은 부모님이 장례식에 조문을 가시고 우리 둘만 남은 밤이었잖아. 언니 곁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던 나의 손을 때린 것은 언니였어. 그 바람에 핸드폰은 침대 위로 떨어지고, 언니는 나의 손을 꼭 붙잡았어. 언니가 그토록 나와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처음이었어.
 그건 조용히 하라는 언니의 신호였어. 그제야 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발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 우리는 숨을 죽이고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힘겹게 정적을 참아내고 있었어.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 언니가 혼자 버텼을 기나긴 어둠의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말아야. 나는 어둠의 공간에서 나의 손을 꼭 붙잡는 언니의 손 때문에 안심이 되었어. 언니는 언니만의 빛으로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언니, 언니의 수술은 한참 진행 중이야. 지금쯤이면 새로 이식받은 각막이 언니의 눈에 잘 들어맞고 있을 거야. 의사 선생님 말대로 각막이식이 실패하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 언니는 지금도 눈 이외에 귀와 코, 손가락 등 온몸으로 빛을 보고 있으니까 말아야. 나의 등대인 언니, 수술실 안에서 빛이 깜빡거리며 더욱 밝아지기 시작한다. 힘내, 언니!

미술



자연이 주는 선물 중등부 강민지 <광주동성여중3>



미래의 우리가족 초등부1·2년 성세경 <금당초1>



자연이 주는 선물 고등부 정지윤 <광주여고1>



미래의 우리가족 초등부3·4년 권유선 <계림초4>

칸만화



광주 민주화운동 고등부 박혜령 <조대여고2>



꽃피는 우리 동네 초등부5·6년 정재윤 <광주송원초6>